

장리상

# 팩트메이커스

▶ 박은서, 박경두, 이수민, 신현호(서인천고등학교)

## 리포트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까?

## 영상

그린벨트 해제 관련 팩트체크 뉴스



## 팀 소개 인사 및 각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팩트메이커스 팀입니다.

저희 팀은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능력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팩트체크 리포트

###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까?

####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최근 정부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계획안을 추진했다.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총 490건의 기사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다루고 있을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는 현재 큰 화젯거리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개혁안이 지방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소멸을 막을 것이라는 목소리와 실속 없는 총선 전략에 불구하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기에 '팩트메이커스'팀은 그린벨트 해제안에 대해 탐구하며 혼란한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인구와 다양한 산업들을 유입, 유치시킬 수 있을까?
2. 비수도권 지역이 더 개발된다고 해서 인구 밀도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까?
3.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된 외곽지역의 성장이 원도심에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힐까?

4.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와 경제적 진척 상황이 없는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5.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인근의 부동산 투기 방지책은 무엇이 있을까?
6.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산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 체크해보기

##### ① 찾아보기

들어보기

반론의견

####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1. 윤해리, [취재엔팩트]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폭 해제... 난개발 우려는?, YTN, 2024.02.22., [https://www.ytn.co.kr/\\_ln/0102\\_202402221323572382](https://www.ytn.co.kr/_ln/0102_202402221323572382)

**요약:**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고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훼손이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팩트체크할 부분:**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2. 김민경, "금단의 땅' 20년 만에 풀려... 반도체 등 지역산업 활성화 기대", 서울경제, 2024년 2월 21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G3QZ1CI>

**요약:** 전국 7개 도시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반도체와 원전 등 지역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이러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다.

**팩트체크할 부분:** 정말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긍정적인 예상이 들어맞을 수 있는가?

**3. 나광국, 그린벨트 해제… “ESG 추세 역행” vs “지역균형개발”, 매일일보, 2024.2.22,**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380>

**요약:**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하고 농지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는 내용이다. 찬성 측 입장은 그린벨트와 농지규제 완화로 개발사업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 입장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해제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팩트체크할 부분:**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난개발, 투기 등 역효과가 발생할까?

**4. “지방발전·환경보존·미래산업육성 모든 면에서 역행”… 전문가들 일제히 비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0256?sid=260>

**요약:** 이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비수도권에서 맞지 않는 개발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할 때는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심을 키우는 일명 ‘콤팩트시티’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곽 땅 위주인 그린벨트 개발은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보수 정부에서 풀었던 그린벨트 구역이 해제 이후 계획과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서 난개발이 일어났고, 효과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즉 2015년 시행했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성공적이지 못했기에 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안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팩트체크할 부분:** 2015년 시행했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실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였는가?

##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2012년 김동호)
2.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연구)(박영사)' (권용우, 변병설, 이재준, 박지희)

## 관련 사이트 조사

### 규제 완화 이후 경제 동향 분석 자료

[https://www.kpi.or.kr/www/bbs/bbs\\_download.asp?BBS\\_NO=7857&file=1](https://www.kpi.or.kr/www/bbs/bbs_download.asp?BBS_NO=7857&file=1)

활아보기

② 물어보기

반론의견

### 정주철 교수(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Q1. 인구유입이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외곽개발(그린벨트 해제로 인한)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이론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거지를 마련, 각종 산업 유치 등으로써 일 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외부 인구 유입이 활성화되는 대신 기존 구도심에 거주하던 인구가 신시가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구도심이 쇠퇴할 가능성이 큼. 그렇게 되면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Q2.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지방 소멸’에 대처하는 방법이라 밝혔는데, 지방이 더 개발된다고 해서 인구밀도 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까요?**

-> 지방 소멸은 복합적인 문제임. 그중에서도 인구 및 기업 유출이 지방 소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에 가지는 메리트를

지방 조시가 갖출 수 없는 한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과 기업 이전을 막을 수 없음. 즉, 단순히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부지를 마련하고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님.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한 지역이 개발되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그 지역의 총 인구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 소멸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음.

**Q3. 시흥이나 창원같이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반면, ‘김해 스포츠 타운’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 이후 이렇다 할 경제적 진척 상황이 없는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그린벨트 해제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들은 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기업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적절히 제공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음. 반면, 실패한 사례는 주로 계획과 실행이 부족하고, 투자 유치나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경우가 많음.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도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황지욱 교수(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Q.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지방 소멸’에 대처하는 방법이라 밝혔는데, 지방이 더 개발된다고 해서 인구밀도 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까요?**

-> 그린벨트 해제와 인구밀도의 변화가 서로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를 띠고 있는지는 검증해 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해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즉, 무엇 때문에 해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누가 해제에 따른 수혜의 혜택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혜의 혜택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해제를 통해서 어떤 방식의 개발이 이뤄질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이 인구밀도 상에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나서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크게 대도시로부터 인구가 유입될 것인지 아니면 대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없이 그저 주변 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만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주변 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지역경제와 지역 인구 규모에 있어서 단순히 수평적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윤상오 교수(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Q1. 인구 유입이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외곽 개발(그린벨트 해제로 인한)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은 수도권에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그린벨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해 놓은 것인데, 지방이나 비수도권 외곽지역은 개발할 땅이 없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도 들어올 공장이나 시설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음

지방의 산업단지는 조성해 놓아도 분양이 잘 안되고, 사람도 구하기 어려움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땅값이 올라가고 땅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 정도에 그칠 수 있음

**Q2.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지방 소멸’에 대처하는 방법이라 밝혔는데, 지방이 더 개발된다고 해서 인구밀도 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까요?**

-> 지방 소멸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생활의 전반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 일자리가 필수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 인프라가 충분조건으로 갖추어져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음. 지금은 출산율 저하로 순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배분은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함. 어딘가 늘어나면 어딘가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해서 인구를 뺏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김해시 민홍철 국회의원 서울사무소 정책주무관

**Q1.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방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김해시의 경우는 해제 이후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아 인구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감하셨나요?**



-> 김해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고립된 마을이나 지역 경계선, 4차선 교차도로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 유입이라는 목적보다는 김해의 대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2. 그린벨트 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행위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험해 보거나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위의 답변과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김해는 이미 발전된 도시로, 대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규모가 국가 차원의 산업 단지가 조성되거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가 아닙니다. 교차도로 혹은 농사를 짓는 마을 등 소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투기 행위에 대해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 반론

**반론1.**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유치한다면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다.

**반론2.**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반론3.**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론4.**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1970-80년대에는 집값이 매우 저렴하였지만 현재 2024년에는 수십억을 호가하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하고 실제로도 실거주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2%로 나와 있지만, 주택공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세대수가 가구 수보다 많기 때문에 이는 주택보급률의 함정이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미국 115.7%, 프랑스 127.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 수의 확대를 통해 집값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반론5.** 그린벨트 지역 중 입지가 좋은 곳을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다양한 산업이 입지할 기회를 창출한다.

**반론6.**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이 유입되면 이는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에서 노동력을 끌어 들여 인구 증가를 유발한다. 인구 증가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지역 내 상업과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반론을 재반박하는 근거

**재반박1.**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외곽지역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추진 예정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여러 경제 주체들로 인한 집적효과가 필수적이기에 생활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외곽을 개발하게 되면 기존 도시 범위보다 넓은 영역까지 서비스와 물류가 도달해야 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산업의 입지가 어려울 것이다.

**재반박2.**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개인이 소유하였다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재반박3.** 지역 간 인구배분은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하다. 어딘가 늘어나면 어딘가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해서 인구를 뺏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재반박4.** 1970년대 주택공급률은 70%밖에 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따라서, 주택의 공급을 더 확대한다고 해도,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실거주 주택 공급 수를 확대할 방법은 많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거나, 주택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활용성을 높여 실거주 주택

공급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재반박5.** 입지가 좋은 그린벨트는 애초에 해제되었거나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땅값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문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효적인 부동산 투기 제재 법률이 생기지 않는 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재반박6.** 외부 인구 유입이 활성화되는 대신 기존 구도심에 거주하던 인구가 신시가 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구도심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결론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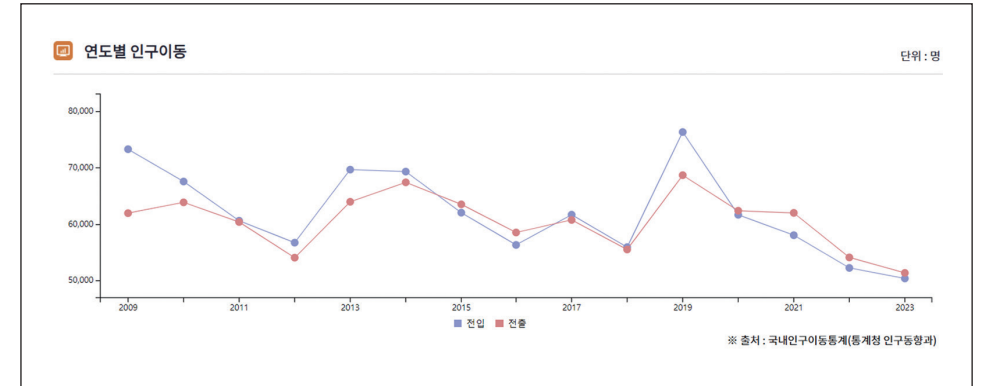
2024년 2월 정부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그린벨트 지역의 규제를 완화 하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사실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대거 보도되어 혼란 을 야기하고 있다. ‘팩트메이커스’ 팀은 이러한 기사들을 분석하고, 도시공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기사에서 조사하였을 때,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규제 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고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그린벨트 땅은 외곽 땅 위주이기 때문에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으로 나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2012년 김동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의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보았을 때, 개발제한 구역 해제는 경제적 효과가 없다.

가령, 2015년 그린벨트를 해제한 김해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고립된 마을

이나 지역 경계선, 4차선 교차 도로에 해당하는 지역들이다. 그렇기에 인구를 유입시 키지 못했고, 해제 이후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이 발생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산업 단지가 조성되거나 공장이 들어설 없었기에 큰 경제적 효과 또한 보지 못했다.

정주철 교수, 황지욱 교수, 윤상오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성공과 실패는 주거지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와 필요 시설 등의 적절한 제공 여부와 관련성이 크다. 또한, 수혜자,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개발 방향이 중요하다.

**문제와 해결 방안:**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린 벨트 해제가 난개발과 투기 상승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투기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해제 후 일정 기간 토지 매매를 제한하거나, 실거주자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매매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거래 자격, 거래 조건, 거래비용 등에서 규제를 할 수 있으나, 지나친 규제는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거래 자체를 못 하게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로써 정당한 자격을 갖춘 경제주체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을 거래 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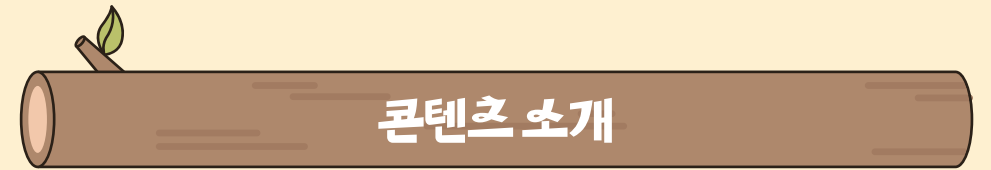
또한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의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함 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만이 지방 경제 활성화의 답이 아니다. 그린벨트를 해제

하지 않고서도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있다. 또한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그린벨트가 아니지만 낙후된 지방을 재개발하면 그린벨트는 보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지방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민들에게 주택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택 공급 등의 확실한 보상을 뒷받침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그린벨트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환경 보전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쫓다가 그린벨트 구역마저 난개발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투기 상승을 유발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역개발 방안이 아니기에 환경 보전 및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된다.



## 그린벨트 해제 관련 팩트체크 뉴스



### 🎯 기획의도

경제 관련 허위 정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를 기획하고자 한다. 이 뉴스는 잘못된 그린벨트 관련 경제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경제 지식을 전달하여 시청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또한, 경제적 이해도를 높여 건전한 논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허위 정보의 위험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 상세설명

1.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로 시행된 김해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린벨트 해제의 현실적 영향을 시민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2.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의 개념과 도입 배경, 영향 및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대안을 소개한다.



#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활동 일자: 2024. 8. 23.

활동 내용: 미디어 콘텐츠 대본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나운서, 전문가, 기자, 시민 등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활동 일자: 2024. 8. 27.

활동 내용: 미디어 콘텐츠 대본을 작성하고, 리포트를 보완하기 위해 도서를 구입하여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일자: 2024. 8. 30.

기자, 시민, 전문가, 아나운서가 되어 학교에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촬영이었지만 추후 결과물을 생각하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촬영했습니다.



활동 일자: 2024. 9. 3.

학교에서 리포트를 보완하고, 촬영한 것들을 편집하기 위해 학교 후에도 스터디룸에 가서 4일간 3시간씩 다 같이 영상을 편집하였습니다.



팩트메이커스의 퀴즈!!

1. 그린벨트의 의미는?
2. 영상 속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3. 오늘날 그린벨트의 주된 해제 목적은?

다 맞출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



활동 일자: 2024. 9. 10.

미디어 콘텐츠를 교내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즈를 맞힌 학생에게 상품을 제공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퀴즈를 맞힌 학생에게 제공할 간식입니다.



활동 일자: 2024. 9. 12.

유튜브에 '팩트메이커스' 이름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홍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완성된 영상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 참여소감

### 박경두

청소년 체커톤 팩트체커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방과 후 2시간씩 모여서 팀원들과 함께 대회 준비를 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기사들과 책을 찾으며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진행될수록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본선 진출 후 저희가 진행했던 주제에 대한 뉴스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뉴스에서 본 전문가들이 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의하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는데, 그걸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재미도 있었고 색다른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 뉴스를 촬영하고 후속 활동으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는 실제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한 흔적이 영상 편집을 하면서 그대로 나타나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뉴스 촬영과 편집을 준비하면서 정보와 그 전달 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꼼꼼히 검수하면서 책임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팩트체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부분은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얼마나 고된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비해, 뉴스에 집중하는 몰입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린벨트와 같이 찬반이 갈리는 논쟁에 대해, 전문가가 본인의 의견을 말할 때 무슨 근거를 통해 어떤 주장을 확고히 하는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 신현호

이해관계가 복잡한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인근 지역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까?'를 주제로 선정하였기에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에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기에 과제를 수행하며 어려웠던 점 또한 많았습니다. 바쁘신 교수님들이 많고, 현장 관계자의 경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꺼려했기에 전문가를 섭외하고 인터뷰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논문을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용어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인 도시공학과와 공공정책학과 교수님 3분의 인터뷰를 확보하여 보람을 느꼈습니다.

### 박은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주제는 복잡한 환경적, 경제적 이슈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인해 어떤 정보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뤄야 하거나, 상반된 주장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려웠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 안에 검증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단순히 정보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꼈다.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린벨트 관련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으며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다. 아울러,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장했다.

### 이수민

'팩트체크'에 대해 처음으로 해본 활동이라 처음에는 두려움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지, 어려운 논문 자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만큼 시간도 노력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어려움을 느꼈는데, 팀원들의 도움으로 질문을 여러 번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질문 사항들을 보완하니 교수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팩트체크 리포트의 토대가 잡혀가고 전문가분들께 답변이 오는 걸 보니 그래도 노력한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본선에 진출하고 본선교육에서 팩트체크 방법과 인터뷰 방법을 배우고 Q&A를 진행하고 다니 더욱 감이 잡혔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분이 강연해 주신 정확한 인터뷰 방법에 관한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번 대회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게 될 인터뷰에 대해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선을 진출하고 나서, 전문가 피드백을 수용하여 리포트를 보완하니까 리포트가 더 완성된 것 같아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위해 대본을 외우고 실제로 시민의 입장에서 말해보았는데 이러한 과정이 팩트체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고 팀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